

상록문화정보연구소(SMRCI) 연구팀,
54종 기호 명칭 부여
2006년 12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문화부회 심의 의결

편집기호(General Editing Signs) KS 규격 제정

지닌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호는 아직까지 명칭의 통일을 보지 못했으며, 더구나 적용 범위를 공식적으로 규정한 바도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 이 연구는 문자 생활의 장애를 제거하고 매체 발전에 따른 문화산업 측면의 표준화의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21세기를 맞이한 정보시대의 다양한 컴퓨터 편집 프로그램의 개발은 이용 편집자에 따라 임의로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편집기호는 언어생활에서 문자 못지않은 의미 전달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지난 1989년 3월에 개정 후 새로 시행된 ‘한글 맞춤법’의 ‘부록’에 문장 부호의 명칭을 부여하고 그 용법과 용례를 마련한 바 있다. ‘한글 맞춤법’의 부록이 정하고 있는 문장 부호 중 15종만을 선정해 컴퓨터 자판에 배정된 기호, 그리고 한글 문자표가 제시한 기호 등을 대상으로 명칭, 적용 범위 등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일반 편집 기호(안)’을 마련하였다(〈별표〉 참조).

2006년 12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산업표준 심의 문화부회는 일반편집기호(General Editing Signs) 54종을 심의 KS의 표준 규격으로 제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이 표준은 상록문화정보연구소(SMRCI: Sangnok Maison de la Recherche Culturelle et Informatique)의 대표인 전영표 이사장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연구팀(한세대 김숙현·동원대 부길만·신구대 이창경 교수)에 의해 2005년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연구한 결과이다.

이 편집 기호의 표준안을 마련한 SMRCI의 연구팀은 ‘한글 맞춤법’의 문장 부호를 비롯하여 컴퓨터 글자판에 나타나 있는 기호와 출판·인쇄 편집에 이용되는 일반 편집기호의 명칭과 용법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통해 일반인들, 특히 출판 편집인들이 언어·문자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초점을 맞추었다.

SMRCI가 편집기호 표준화 연구를 실시한 배경은 첫째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둘째 여러 기호들이 같은 적용 예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 편집기호는 상황에 따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는 데 있다. 편집기호의 적용은 사용자간의 약속이지만 큰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 것이다. 약속은 사용자가 기호에 대한 명칭과 적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할 때 지켜질 수 있다. 기호는 의사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문자와 같지만, 문자보다는 자율성을

이번 표준화 연구는 용어의 타당성을 찾기 위해 복수 용어에 대하여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의 선호도 면접 조사 등을 시행했다. 전영표 이사장은 “이번에 제정된 이 편집기호의 KS 표준 규격은 앞으로 일반 책을 비롯하여 신문, 잡지, 교과서, 사전, 리플렛, 문서, 인쇄 광고물 등 종이 출판물과 웹북, 웹진, 모바일 콘텐츠 등 전자적 표기에 널리 쓰이는 모든 표현 매체에 적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일반 편집기호’의 표준화는 한글 맞춤법 ‘문장 부호’ 규정의 보완과 컴퓨터 자판 기호의 통일은 물론, 저자, 편집자, 교정자, 그래픽 디자이너,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자들에게 ‘일반 편집 기호’에 대한 명칭과 용법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각종 출판·정보 매체의 콘텐츠 제작자와 이용자들에게 통일된 기호의 이용으로 제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표준안을 마련한 SMRCI 연구팀은 이 밖에도 편집용어 200단어 등 ‘출판·인쇄 표준화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계획도 진행 중이다. ■